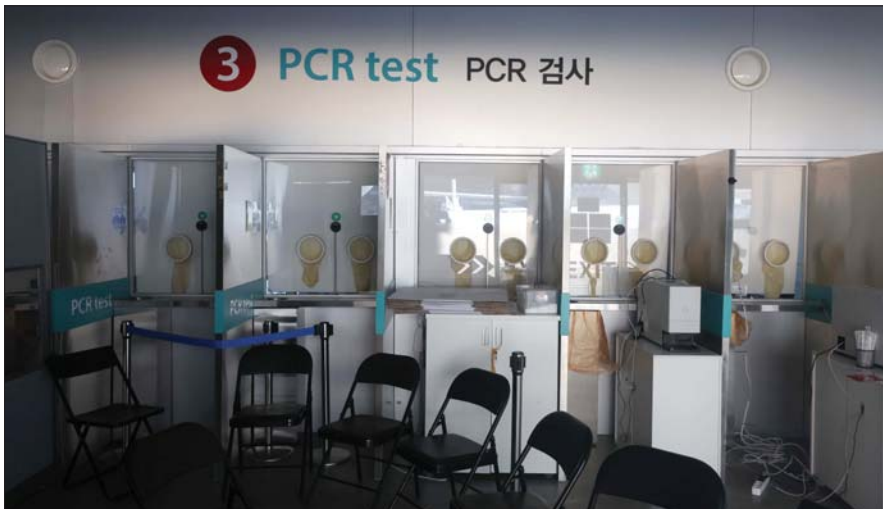


리오프닝 효과 못 본 화장품·면세株, 中 양회 기대감 ‘쑥’

LG생건·아모레퍼시픽 주가 하락
中 2월 제조업 PMI 11년만에 최고
리오프닝 효과 판가름 분수령 예상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관광 및 호텔, 화장품·면세 관련주들이 최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히는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는 지난달 1.26%, 3.67% 오른 반면 대표 화장품주로 꼽히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10.09%, 4.88% 하락했다. 이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리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1일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가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올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가 리오프닝의 효과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에도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전반적으로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호텔 신라와 롯데관광개발은 전일 대비 각각 1.12%, 1.60% 하락한 7만9300원, 1만

416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각각 1.50%, 4.48% 오른 67만8000원, 14만4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기대가 컸었으나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홍콩 경기와 금융시장 흐름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1월 홍콩 수출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36.7% 급감했고, 수입증가율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0.2%로 부진했다.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 수출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리오프닝효과는 분명히 잠재해 있지

만 당장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과 더불어 정찰 풍선사태로 재차 긴장감이 고조된 미·중간 갈등 등은 홍콩을 위시한 중화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4일 열리는 양회를 앞두고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어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 전망도 명확해져 리오프닝 수혜주들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연구원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경제를 총괄하게 되는 리창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3월1일 2월 중국제조업PMI지수발표를 시작으로 1~2월 경제지표발표가 3월중순경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도 리오프닝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분수령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토스증권, 美 주식거래 시장 존재감 ‘톡톡’ ‘KB밸류포커스펀드’ 액티브펀드 수익률 1위

직관적인 앱 구성, 차별화된 서비스
1월말 기준 美 주식 거래액 4.7조

토스증권이 업계의 미국 주식 거래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쉽고 직관적인 애플리케이션(앱) 구성과 토스증권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2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토스증권의 미국주식 거래액은 4조68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 거래액인 24조3300억원의 19.2%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월 말 3.4%였던 시장점유율이 1년새 6배 가까이 큰폭으로 성장했다.

현재 미국주식 시장 점유율 1위는 키움증권이다.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원 수준으로 38.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과 삼

성증권이 5조원대의 미국주식 거래액을 보유 중이다. 토스증권의 약진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기존 증권사들의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다.

토스증권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해외주식 수탁수수료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수탁수수료는 380억원인 업계 8위 수준으로 국내 대형 증권사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다.

토스증권은 최소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와 올 상반기 선보인 주식 모으기 서비스가 큰 시너지를 냈다고 평가했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4월 증권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미국 주식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리츠(REITs) 등 거래 종목을 확대해 본격적인 위

탁매매 수익 확대에 나선 상태다.

지난 2월부터는 한국시간으로 낮 시간대에도 투자할 수 있는 데이마켓 서비스를 출시했다. 거래 시간에 따라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 데이마켓으로 구분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데이마켓에서는 지정가와 시장가 매매로 거래할 수 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 브로커 및 환전 은행 이중화를 통해 안정적인 매매환경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서비스 출시 1년여 만에 2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달성한 것은 토스증권이 제시한 투자방식에 고객이 동의해 준 결과”라며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혁신적인 투자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이라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KB자산운용, 3개월 수익률 10.24%

KB자산운용의 ‘KB밸류포커스펀드’가 500억원 이상의 액티브 주식형 펀드 71개 가운데 3개월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2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KB밸류포커스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10.24%로 집계됐다.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상위 10개 펀드 중 4개(KB밸류포커스, KB연금가치주증권전환형, KB중소형주포커스, KB주주가치포커스)가 KB자산운용의 펀드다. 행동주의펀드 관련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오스템임플란트와 SBS를 편입한 것이 수익률 상승의 요인이 됐다. 최근 3개월간 오스템임플란트는 76.6%, SBS는 29.5%씩 각각 상승했다.

KB자산운용은 두 종목을 저평가 기업으로 발굴해 2020년, 2021년부터 보유 중이다. 이 밖에 2015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골프존도 34% 이상 올랐다.

펀드 구성종목을 살펴보면 ▲골프존(11.07%) ▲오스템임플란트(9.57%) ▲티앤알바이오랩(5.22%), ▲SBS(4.92%) 등이다.

‘KB밸류포커스’는 2009년 설정된 가치주 대표 장수 펀드로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162.8%를 기록하고 있다. 단순 수익률로 환산하면 매년 10%이상 수익을 낸 셈이다. 기업의 본질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선별해 장기 투자하고 복리수익을 추구한다는 운용철학에 맞게 운용한 결과라고 KB자산운용 측은 밝혔다.

또한 KB자산운용의 중소형 가치주 펀드인 ‘KB중소형주포커스펀드’도 3개월 수익률 10.03%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주주관여활동들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미경 기자

우미희망재단 산재피해·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

‘우미드림파인더’ 참여자 모집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산업재해 피해 및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초등학교5학년~중학교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 ‘우미드림파인더’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김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우미드림파인더’는 2018년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1:1 멘토링 ▲진로 체험 및 탐색 프로그램 ▲국내 및 해외 캠프가 있다. 참여아동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기 위한 꿈 지원 키트와 진로 장학금도 제공한다.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은



2022년 우미드림파인더 활동 모습.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는 아동이 능동적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며 정서적 지원도 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는 해외 캠프도 함께 진행해 보다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미드림파인더’는 우미건설이 출연한 공익법인인 우미희망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삼성증권, 중개형ISA 채권매매 개시

국내 장외채권 매수 가능

삼성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채권매매가 오는 6일부터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권 매매 서비스 도입으로 중개형ISA에서 국내 장외채권을 매수할 수 있게 됐다.

ISA 계좌는 소득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소득이 있다면 15세에서 19세 미만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1인 1계좌로 개설이 가능하며, 만기 시 과세소득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한 손익은 9.9%로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지난 2021년에 처음 등장한 중개형ISA은 개별 주식매매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채권까지 확대된 것이

다.

예를 들어 채권을 투자해 벌어들인 이자 소득이 5백만원일 경우, 비과세 한도인 2백만원을 차감한 3백만원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동일하게 채권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 전체 5백만원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중개형ISA 계좌 3년 의무보유 기간 유지가 필수다.

김상훈 삼성증권 디지털마케팅담당 상무는 “ISA계좌는 절세의 만능키로 불릴 만큼 투자를 위한 필수 계좌”라며 “업계최대 계좌 및 잔고를 보유한 삼성증권 위상에 걸맞게 보다 다양한 상품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